

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라고 했다.

Teillac, Stadie, Contzen 세 사람의 이와 같은 발언은 10월초 프랑스 아비뇽에서 열린 열중성자로 안전성에 관한 국제대회인 「Nucsafe 88」 개회 세션에서 400명의 참석자들 앞에서 행해진 것이다.

## 스위스

### 政府, 에너지政策決定權限 要求

스위스 에너지성 장관 Ogi 씨는 의회에서 동성의 최우선과제는 에너지 문제에 관한 한 연방정부가 결정권한을 부여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9월에 있을 의회 심의에 앞서 의원들에게 보낸 각서에서 Ogi 장관은 동성은 스위스에서의 어떠한 원자력선택의 보류나 포기에도 반대한다고 말하고 1990년이나 그 이후에 시행될 반핵 국민투표안을 거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Ogi 장관은 Kaiseraugst발전소 프로젝트 취소에 따른 산업계에 대한 보상문제가 신축성있게 다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되풀이해서 말하고 정부로서는 보상문제를 의회가 주도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현재 Kaiseraugst 콘서시움은 약 13억 스위스프랑(8억3천8백만불)의 투자액 중 그 일부만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데 이중 절반은 융자금과 이자이다.

### 에너지關聯機關, 原子力選擇을 強力 主張

스위스의 에너지 관련 6개 기관들로 구성된

한 단체는 원자력 선택의 자유화를 기본이념으로 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이라는 표제하의 사업계획을 공식화했다. 전세계적인 기온상승과 기타 환경문제 축면에서 이 단체는 화석연료사용 화력발전소의 건설은 「무책임한」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기관들의 주장은 다음 가 같다.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는 필요에 따라 개량과 최신기술로 보완하면서 운전을 계속해야 한다, 원자력의 보류나 포기에 대한 선동은 중지돼야 한다. 원자력발전소 추가건설의 필요성은 명백히 확인돼야 한다,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의 건설은 추진돼야 한다, 원자력 기술과 노하우는 고도화시켜야 한다, 등. 이에 추가해서 이 기관들은 스위스 원자력발전소 인허가 수속의 간소화를 권고했다. 이 계획서는 이미 의회에 제출되었는데 의회는 9월 19일부터 국가 에너지 정책에 관한 심의를 시작했다.

## 中國

### 新型中性子發生裝置 開發

중국은 국제적 첨단수준인 매초 3조3천억개의 중성자발생장치를 개발하였다. 이 성과는 중국이 중성자발생장치 기술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음을 의미한다.

이 중성자발생장치는 蘭州大學 현대물리학과와 원자핵연구소가 개발한 것으로서 8월 28일 정부의 검증에 합격했다. 검정위원회는 이 중성자발생장치의 주요기술지표가 同型 중성자발생장치의 국제적 수준에 도달했다고 인정하고, 이 중대한 연구성과는 중국의 국민경제와 국방과학연구에 중대한 공헌을 할 것이라고